산중미술관을 개관한 상묵 스님은 '꿈꾸는 동심'을 주제로 스님의 어린 시절을 화폭에 담았다. 왼쪽부터 '동심' '엄마의 꿈'

모든 것을 잃고 나니 마음이 크게 열리더라

하동 지통사 상묵 스님, 산중미술관 개관

"지금까지 개인전을 15회 가졌지만 긴 시간동안 활동을 못한 탓인지 이번 전시회가 가장 어렵게 느껴집니다."

경남 하동군 화개면 지리산 형제봉 중턱의 작은 사찰 지통사에 미술관이 열렸다.

주지 상묵 스님(사진)은 10월 22일 '산중미술관'을 개관하고 20여 년 간 사찰을 홀로 지키며 그려온 그림들 100여 점을 상설 전시한다. 서울 정동 경향갤러리에서 개최한 전시 이후 7년 만이다.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던 지통사 상묵 스님은 출가 후에도 그림을 그렸다.

요즘에 들어서야 노래하는 스님, 조각하는 스님, 그림 그리는 스님 등 이름을 알리며 예술활동을 하는 스님들이 많지만 30~40년 전만 해도 승가에서는 스님들의 예술활동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봤다.

그래서 스님도 출가 후 30여 년간 수행하면서 영감이 떠오를 때 마다 틈틈이 몰래 그림을 그려왔다. 그렇게 그리고 모아온 작품만 2000여 점. 1996년 경남 하동군 화개면 지리산 중턱의 작은 사찰 지통사에서 첫 전시회를 열었다. 녹차를 대접하는 조촐한 전시회로 시작했지만 지리산 마을 사람들을 비롯해 서울 등 전국에서 구경 왔다. 그 이후로 지통사와 서울 덕원 미술관 등에서 10여 차례의 개인전을 열고 2000년에는 프랑스에서 초대전을 제안받기까지 했다.

그러나 스님의 그림 수행에 고난이 찾아왔다. 2001년 겨울, 화재가 발생해 30년 넘게 수행하며 그려온 그림 2000여 점이 전부 소실된 것. 작품을 보관하는 전시관과 법당 모두 타버리고 요사채만 덩그러니 남게 됐다. 그림을 통해 작은 절을 짓겠다는 소망도 함께 날아갔다.

"화재가 난 후 한 동안은 정신이 없었습니다. 평생 동안 그려온 작품들이 하루아침에 없어져 붓을 내려놓을까 생각도 했습니다."

상묵 스님은 컵라면을 하루에 한 개만 먹을 정도로 의욕을 상실했고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매일 기도를 했다. 그렇게 1년이 지난 어느 날, 읍내 화개장터로 내려갔다. 인근 공사장에서 주운 널빤지, 나무토막 등을 가져다가 캔버스를 만들고 그 위에 물에 갠 황토를 발랐다. 그 위에 먹과 유화물감으로 그림을 그리니 작품이 됐다. 그렇게 그린 작품들로 2004년에 정동 경향 갤러리에서 전시회를 열었다.

이후 스님은 전시관과 요사채를 다시 짓기 위해 일어섰다. '산중미술관'을 다시 여는 데에만 7년이란 세월이 걸렸다.

"저에게는 너무나도 긴 세월이었습니다. 1년에 두 번씩이나 전시회를 열 정도로 바빴는데…."

그래서 스님은 이번 전시회가 설레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겁나기도 한단다. 하지만 그림을 그리면서 큰 교훈을 얻었다.

"옛 큰스님 말씀 중에 '큰 것을 잃어야 큰 것을 얻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참 와 닿았어요. 내 모든 것을 잃게 되니 마음이 크게 열려졌다고 할까. 전에는 아만(我慢)이 많았는데 경험을 통해 자연 순리대로 산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꿈꾸는 동심'을 주제로 한 이번 전시에서는 스님의 아련한 어린 시절을 화폭에 담아냈다.

해지는 줄 모르고 술래잡기 하며 뛰놀던 기억, 뒷동산 달이 환하게 떠올랐을 때 또래들과 한데 어울려 조잘대던 동심의 시절들을 볼 수 있다. 서양화, 유화, 동양화, 선묵화를 비롯해 황토, 기와 등 다양한 재료를 접목한 작품이 전시된다. 황토그림을 비롯해 버려진 음료수병을 도자기 삼아 그린 병 그림도 감상할 수 있다.

상묵 스님은 "이번 전시는 자연과 차(茶)와 그림을 한꺼번에 감상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055)883-3751

이나은 기자 oasis1983@hanmail.net

부처님 가르침 조각으로 만나요

전통문화재 조각회전
10월 31일까지

단하소불(은행나무, 조병현 作)

고승 대덕들의 설화와 가르침을 조각으로 표현한 전시회가 열린다.

문화재조각기능인 모임인 대한민국 전통문화재 조각회(회장 송근영)는 10월 31일까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에서 '제12회 대한민국 전통문화재 조각회전'을 개최한다.

전시회에서는 목조와 석조 등 60여 작품이 출품된다. 경전에 등장하는 불 보살상과 문수보살의 게송을 표현한 조형과 고승 대덕들의 설화 및 가르침을 조각으로 처음 표현한 작품들이 출품 됐다. 또한 달마대사의 몸이 바뀌기 전의 모습과 바뀐 모습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작품 등 현대적인 흐름을 담으려한 작품도 볼 수 있다.

송근영 회장은 "문화재조각기능인들의 문화재 보수복원 작업을 통해 갈고 닦은 기량을 창작 작품으로 승화시켰다"며 "불교미술 공예조각이라는 방편을 통해 심오한 부처님의 진리를 보다 쉽게 가슴깊이 대중들에게 이해시키고 불교미술인의 저변확대와 독창적인 한국불교 미술조각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기획했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이나은 기자

문(나무, 김광현 作)

무염무구시진상(향나무, 송로영 作))

여법한 마음으로 그린 부처님 그림

11월 1일까지 갤러리 이즈

영산회상도(21011)

용인대 예술대학원 불교회화 전공자인 최가영의 석사학위 청구 개인전 '여법전(如法展)'이 11월 1일까지 서울 인사동 갤러리 이즈 제4전시관에서 열린다.

법고창신(法古創新)의 자세로 익힌 불교회화의 세계에 진지한 구도의 마음을 담아냈다.

전시작품으로는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중인 전남 대흥사의 '영산회상도'를 임모(臨摸)한 작품과 1562(명종 17년)에 제작된 '사불회도'의 임모작, 고려시대의 '수월관음도'를 임모한 작품 2점과 함께 다양한 불교회화를 선보인다.

최가영 작가는 "청정무구한 해탈의 경지가 곧 불교의 이상적인 세계이며 이를 상징적으로 조형화시킨 것이 불화"라며 "이번 전시를 통해 번뇌와 고통에 싸인 중생들의 굳게 잠긴 마음의 문을 여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세계를 시각적으로 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02)736-6669 이나은 기자

능인 스님, 창작음반 7집 발표

디스코·랩 등 다양한 장르

작사, 작곡, 기획, 제작에 노래까지 소화하는 싱어송라이터 행복사 능인 스님이 창작음반 7집을 출시했다.

'심향, 마음의 향기 7집'에는 디스코와 트로트, 민요, 랩, 발라드, 왈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식으로 탄생한 대중가요와 찬불가 12곡이 수록돼 있다.

능인 스님은 이번 음반에서 젊은이들을 위한 계몽적인 노래 '아니야 아니야', 불교의 신앙 형태를 꼬집은 '부처님 전에 돈 천원 놓고' 등 색깔이 있고 재미있는 곡들로 엄선해 선보이고 있다.

(02)945-3424

'소리풍경' 찬불가 앨범 발표

블루스 음악과 실험적이고 독창적인 음악을 선보이던 이대희의 찬불가 프로젝트 팀 '소리풍경'이 찬불가 앨범을 발표했다.

'소리풍경 2011'에는 굿거리 찬불가 '부처님께 귀의하며'를 비롯해 징 솔로 연주 '선(禪)' 등 6곡을 수록했다.

www.edayband.com

이나은 기자

조계종 문화부, '도심속 산사음악회'

조계종 문화부와 '노래의 인문학'이 10월 26일 저녁 7시 30분 템플스테이 종합정보센터에서 도심속의 산사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가을 연등회'를 주제로 싱어송라이터 김현성, 북밴드 '움직이는 꽃'이 그동안 발표한 '연등회'의 노래와 연등회에서 빚어진 재밌는 이야기들로 구성해 관객들에게 다가간다. 이나은 기자